# 한국과 북한, 미, 중, 일이 한 나라인 이유

## (열왕기하 22:1~20)

1.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3.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므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4.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숴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계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 미, 중, 일이 한 나라인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한국과 북한, 미, 중 일이 한 나라인 이유'
오늘 제목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 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국가를 보자면 온 세상은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원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 안에는 여당은 야당을 향하여 종북세력으로 부르기도 하는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남북은 오래전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한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도 한 나라이고, 정말 원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도 한 나라입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도 오세아니아의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도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영토가 구분되어 있어도 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복하고 있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두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의해 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나라와 하늘 가치에 의해 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무역 협정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많이 다퉜지만 이미 한 나라인 것이고, 영토 분쟁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다투고 일본은 중국과 다투지만 사실 한 나라인 것입니다.
일본어나 한국어나 그 언어를 정복한 가치는 똑같습니다. 내 이익이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독도를 중심으로 경계수역이 확장되어서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이고,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어느 나라나 다름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인간들이 알아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언어를 채택할 때에는 언어에 대한 정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정복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만두를 만들 때에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안에 들어있는 소가 김치면 김치만두가 되고 고기면 고기만두가 되고 야채면 야채만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말씀으로 채택하시면 단어의 알맹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정복입니다.
성공 부자 가난과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에는 부자는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진 자를 뜻하고, 가난은 세상 가치를 갖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 사용될 때에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단적으로 들어봅니다. 계3:17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언어의 충

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에 의해 정복된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에 정복이 일어난 부자라는 단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쓰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뜻의 말이 되었습니다. 단어는 사용하되 단어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3:7~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언어 되게 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치로 언어가 정복되자 이전에는 소중하다고 말했던 것을 향하여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정복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언어 정복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모든 개인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히포크라데스 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즉 의사의 언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로서, 생명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언어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선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언어가 바뀌어서 병원이 이윤추구의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통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의 가치가 정복당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부장 판사가 레인지로버라는 외제차를 뇌물로 받아서 옷을 벗게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뇌물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언어가 자본주의의 가치에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판검사의 언어를 지배하는 가치는 정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정복된 언어로 인해 레인지로버라는 재화가 내게 있으면 내 삶이 유익해 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에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가치의 차원에서 보자면 오직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할 뿐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언어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가치가 돈이라는 세상 가치라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한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서도 한 나라인 것이고, 북한과 한국도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는 가치가 똑같이 세상의 가치라면 이미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재미있고 기가 막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남 왕국 유다의 16대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지독한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영성은 세상 가치를 부여잡은 마음을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성전의 존재의미를 깡그리 제거해 버린 탁월하게 악한 영성입니다.
한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즉위하여 이 년 만에 살해당하고 남 왕국도 북 왕국처럼 왕조가 바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몬의 아들이 여덟 살 된 요시야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복들이 이 어린 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백성들이 나서서 여덟 살 요시야를 왕좌에 앉히게 됩니다.
이후 요시야가 삼십일 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왕이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기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도록 하자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뒷부분에서는 또한 그 율법책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그 의미를 묻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이십삼 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 뒤로 네 왕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헬라나 로마의 속국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뒤 AD70년경에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북 왕국 이스라엘은 BC722년에 없어졌고, 남 왕국 유다도 므낫세 대에서 멸망이 확정되고 요시야 왕의 통치가 끝난 후 이십삼 년이 지난 BC586년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선민에게 약속된 땅의 지리적 차원의 영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숨겨졌던 율법책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 의미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영토가 없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영원할 것이라는 단어를 메시야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민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영토는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선민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나가실 것을 예표 하셨습니다. 그것을 선민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영토가 없어져도 선민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율법책입니다.
영토가 없어질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요시야가 등장한 것이고 요시야를 잇는 네 명의 왕은 망할 때까지 악한 왕들만 나타납니다. 요시야의 돌출 의미는 망할 것이 확정되었지만 다윗과 언약한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까지 이어지고 메시아로부터 또 시작하는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은 영토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 세워질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영토가 이어지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언어는 가치에 지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추구하는 언어이고 이 언어를 추구하는 나라가 선민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나라는 돈의 가치에 의해서 언어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지배됩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북한에서조차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장마당에 나가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통일이 된 것입니다. 한국도 돈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의 언어 생각 판단 행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문제도 결국 돈으로 대표되는 풍요와 다산의 가치에 지배당한 결과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로봇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토로서의 선민의 나라는 없어지지만 다윗과 언약하신대로 선민의 나라는 가치에 의해 정복되는 언어의 차원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스케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언어를 정복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정복된 언어와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정복된 언어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지출이 많으면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실제로 내가 처한 환경 자체가 걱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돈의 가치에 의해 정복된 언어로 환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정복하는 가치를 바꾸면 걱정이 아닌 게 됩니다.
자본주의 가치에 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

치로 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다산의 가치에 지배된 언어와 하나님의 가치에 지배되는 언어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언어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은 유전 죄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선민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곧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내가 기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승진하고 싶다면 승진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 모두도 죽을 때까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라가면 선민이 선민 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정복된 언어로 통용되는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갔으면 만족하겠다는 마음에는 마치 물속에 기포가 생기는 것처럼 그만한 크기의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못하자 흡입력을 발휘하여 자녀의 일류대학으로서 채우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그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자녀의 일류대학이라는 가치를 원치 않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실지로 돈을 벌면 기쁜 게 아니라 습관적인 유전 죄에 의해서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고, 진짜는 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굶주림과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굶주림은 해결됩니다.
친구가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거짓 영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돈이 있어도 또 다른 것으로 불행합니다. 일류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일류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장 판검사가 뇌물을 받아 처벌 받는 것도 그가 일류대학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동안에만 이 세상의 언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다면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정복된 언어가 내 속에서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의해 정복된 언어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곧 부활

과 승천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기 위한 것을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할 때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선민의 땅 복지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정복된 언어의 나라가 선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토가 없어질 나라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된 나라가 진짜 선민이 살아야 될 복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하나님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 가치에 의해 정복된 언어의 세계에 대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복지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